I.M.Pei

- 중국적 미학을 세계에 선보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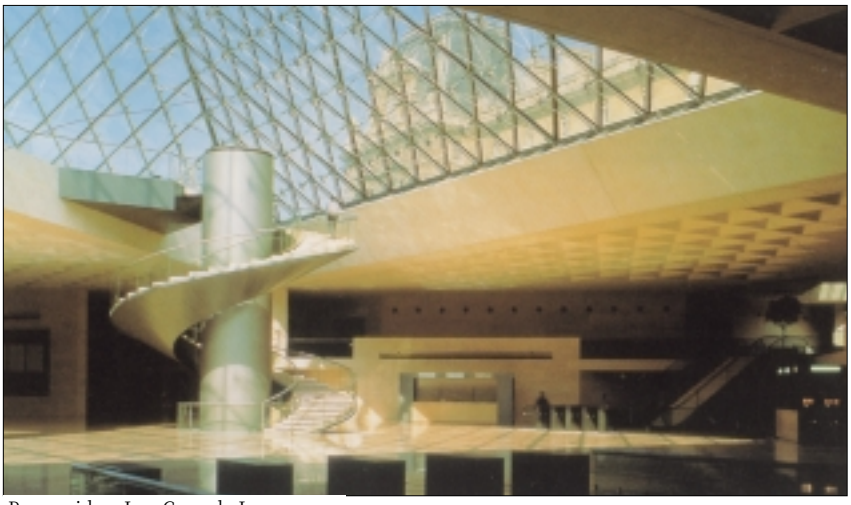
East Building of The Natio.

2000년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의 총 커미셔너인 푹사스가 20세기의 도시와 건축의 반성을 통한 새로운 세기의 건축과 도시의 윤리를 말하면서, 20세기 건축은 유럽과 미국이 이끌어왔며 일부 일본의 참여가 있었으나 아직 세계 건축의 큰 흐름은 유럽에 있다고 공언하였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 있으며, 긴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그들이 모두를 이룬 것 같지만 그것은 역사의 한 우연이기도 하다. 문명의 충돌을 말하는 한팅턴도 정작 문명의 공존을 말하기보다 문명의 충돌이 도달할 서구 사회의 세계 지배를 예견한다. 그러나 짧은 현대 건축의 역사에서도 유럽의 세계 지배를 아메리카 대륙의 지리와 일본 건축에 뿌리를 두었던 비유럽적인 라이트의 영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20세기의 문명이 결국 유럽의 주류와 유럽의 문명적 식민지인 변방 국가로도 상형화될 것인가도 21세기의 중요한 화두다. 21세기 건축에서 차지할 아시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I. M. 페이는 20세기 현대 건축에 중국 문명의 큰 그릇을 보여준 사람이다. 그가 미테랑 대통령의 부탁으로 루브르박물관 개조 개혁을 맡았을 때 모두 의아하였으나, 이탈리아의 건축가들을 초대하여 그들 문명의 상형문자를 만들어온 프랑스인은 이미 의도한 바였다. 드디어 루브르의 피라밋과 지하가로와 광장이 완성되었을 때는 모두가 중국 문명의 미학이 파리 한가운데 뿌리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I. M. 페이는 할아버지 아래서 자랐다. 쑤조우(蘇州)의 사자원을 소유했을 정도로 큰 부자였던 할아버지는 어린 이오밍 페이에게 '모든 일에 열정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큰 학자이기도 했던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이제 80대의 할아버지가 된 I. M. 페이에게 아직도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의 아버지는 차이나뱅크의 총지배인이었다. 이오밍 페이의 아들인 리청 페이가 베이징의 차이나뱅크를 오프닝때 감개무량하게 우리 할아버지가 차이나 뱅크의 총지배인이었고 아버지가 세계 최대의 상하이 차이나뱅크를 설계하였으며 드디어 자기가 차이나 뱅크의 본점을 설계하게 된 가족사를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I. M. 페이가 이룬 그간의 영광이 페이 패밀리의 영광으로 시작되어 영광으로 이어지는 현장을 보는 듯 했다. I.M.페이는 1917년 캔톤에서 태어나 1938년까지 상하이에서 교육받다가 스물 두살 나이에 상하이를 떠나 미국으로 갔다. '중국이 세계 그 자체'인 줄 알

Hancock Tower.



Pyramide, Le Grand Lover.

다가 서구 열강에 처참하게 짓밟힌 후 ‘ 중국의 세계화 ’가 시작된 때 그는 세계의 중심인 보스턴과 뉴욕으로 간 것이다. 1940 년 MIT 를 졸업하고 당시 에꼴 드 보자르와 바우하우스 이후 세계 최고 건축 교육 기관인 하버드 GSD 에 들어가 그로피우스의 가르침을 받고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그의 문하에서 일하다가 1948 년 뜻맞는 친구들과 사무실을 열었다. 그의 아버지 친구인 부동산 재벌 재켄도르프도 그의 재능을 높이 사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한다. 대게 그런 경우 SOM 같은 상업적 건축가의 길을 걷게 마련이었으나 페이는 건축가의 길을 고집한다.

1960 년 그의 출세작인 마일하이하우스를 「20 세기 건축 걸작선」이라는 책에서 처음 보았을 때 그저 중국을 탈출한 중국 부자의 아들이 미국에 와서 이룬 성공 사례 정도로만 보았다. 미이스의 아류같이 보였고 더구나 건축의 비례감각이 둔하여 미완성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이후 콜로라도의 국립환경연구소 에버슨-미술관 등에서 꼬르뷔제적 건축 속에서도 꼬르뷔제와는 다른 페이 특유의 빛과 그림자가 만드는 독특한 비례와 공간을 볼 수 있었다. 헨리콥, 잉거 프리드 등과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한 후 초고층 타워를 아름다운 조형으로 역사 건축 사이에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존 행콕타워, 콘크리트로 빚은 서사시적 미학의 세계를 보인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센터, 미술관의 새로운 역사를 연 스미소니언의 국립 미술관 동관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거대 조직의 건축가 조직도 얼마든지 예술적 건축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듯한 일련의 작업을 해나간다. 이때 이오밍 페이를 만나러 갔다가 잉거 프리드를 만나 그에 대해 물었다. 그때 잉거 프리드의 대답이 ‘ 그와 같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뛰어난 건축가가 된다. 그는 모두에게 열정을 전염시킨다. 그와 함께 일하는 시간 모두가 메모러블하다 ’는 말을 들었다. 그러더니 드디어 프랑스대혁명 200 주년을 맞이한 파리가 10 개의 기념비적 건축물을 짓는 중 가장 중요한 루브르 박물관 증축 설계를 그에게 맡긴다. 다른 그랑쁘로제 모두를 국제 현상으로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루브르 박물관은 그에게 맡긴 것이다. I. M. 페이는 대통령과 직접 일한다는 말이 건축가들 사이에 오갈 때였다. 그는 천부의 건축가인 동시에 천부의 사업가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건축가였다. 그가 드디어 혼자 되어 작은 사무실을 갖게 되었을 때 그렇게 좋아하였다고 한다. 많은 건축가들이 그의 뛰어난 설득력을 그의 일에 대한 열정으로 보다 사업가적 재능으로 보나 그의 설득력은 천부의 재능과 일에 대한 열정과 그의 건축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차이나뱅크 오프닝 때 우량룽 교수의 소개로 그를 만났다. “ 샌디로부터 얘기 많이 들었다. 컬럼비아 대학에 와서 가르친다는 데 그 나이에 큰 용기다. 예술의 전당 얘기를 들었다. 한번 가서 보고 싶다. 베네치아비엔날레 건물은 사진에서 보았다. 매우 인상적이다… ” 손을 잡고 눈을 마주하며 웃으며 마치 집안 큰 어른같이 말하였다. 문득 20 년 전 ‘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시간이 기억 할만한 시간이었다 ’라던 잉거 프리드의 말이 생각났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큰 인간이었으므로 혈혈단신 세계의 중심에서 버려져 있던 중국의 형이상학과 미학을 세계에 당당하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가 북경 교외에 세운 향산호텔은 비록 시공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또 하나의 큰 건축이다. 그가 뉴욕의 ‘ 한국문화원 ’을 설계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시아의 건축가가 세계 최고의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 우리 모두의 건축가이다.

Bank of China.

김석철 (건축가, 베네치아대학 · 콜럼비아대학 초빙 교수)